ETF Strategy

유진투자증권

Bi – Weekly #120 | 2026.1.20

ETF/파생 강송철 Tel. 02)368-6153_ buykkang@eugenefn.com

전기 사용(“electrification”) 증가, 구리 투자, ETF

신고가, 신저가 ETF

ETF 투자전략

Summary

구리 수요(demand)와 공급(supply)

“전기화(electrification)” 추세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2040년까지 글로벌 전력 수요는 약 5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경우 지난 25년 간 전력 소비가 거의 증가하지 않았으나, 현재는 연간 최대 2.5% 수준의 성장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 전력 수요가 지난 25년 간은 거의 증가하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하다. 전력의 생산, 송전, 사용 전 과정에서 구리(copper)는 필수적이다.

S&P Global에 따르면, 글로벌 구리 수요는 4개의 요인과 함께 증가하고 있다. 1. 전통적인 경기 연동 수요 외에 2. 에너지 전환: 태양광/풍력, 전기차 등과 전력망 투자 확대 수요, 3. AI, 데이터센터의 폭발적 성장, 그리고 4. 국방(defense) 부문에서의 수요 증가다.

이에 따라 글로벌 구리 수요는 2025년 연간 2,800만 톤에서 2040년 4,200만 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현재 생산 중이거나 계획된 광산 외에 신규 광산 개발이나 기존 광산의 확장이 없을 경우, 구리 채굴(mined copper) 공급은 2025년 2,300만 톤에서 2030년 2,700만 톤으로 정점에 도달한 후 2040년에는 2,200만 톤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활용(recycling)을 감안해도 2040년까지 연간 약 1,000만 톤의 구리 공급 부족이 발생할 수 있다. 2025년 수요 대비 36%에 해당하는 규모다.

Summary

구리 가격 이전 최고치 상회

구리 가격은 작년 말부터 이전 최고가 였던 톤당 만 달러를 상회해, 새로운 변화를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했다. 단기간의 가격 급등이 부담이어도, '전기 사용 확대'라는 긴 호흡의 수요 증가를 생각하면, 투자 대상이 될 수 있다.

Tiger 구리실물 ETF(160580)는 구리 실물에 투자(창고 보관 구리 증권)한다. 해당 ETF를 통해 구리에 투자할 수 있다. 연금 계좌에서도 투자가 가능하다.

미국에 상장된 구리 생산 기업 ETF: COPX 주가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ETF에 편입된 미국 구리 생산기업: Freeport-McMoRan(FCX)도 구리 가격 상승과 함께 작년 말 이후 주가가 올랐다. 현재 주가 기준 배당수익률을 계산해 보면 1% 수준인데, 향후 실적 증가로 배당이 늘어나거나, 주가 조정으로 배당수익률이 1% 중반 수준까지 높아질 경우 주가 매력이 높아질 수 있다.

전선 기업은 제품 가격에 원자재(구리) 가격을 반영하는 조항으로 구리 가격 상승 시 수혜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 전력기기 ETF에 편입된 전선 기업을 보면 몇 개 기업은 최근 분기까지 실적이 눈에 띄는 증가세를 보였고, 이익 증가 대비 밸류에이션도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으로 판단된다. 관심을 가져볼 수 있다.

ETF STRATEGY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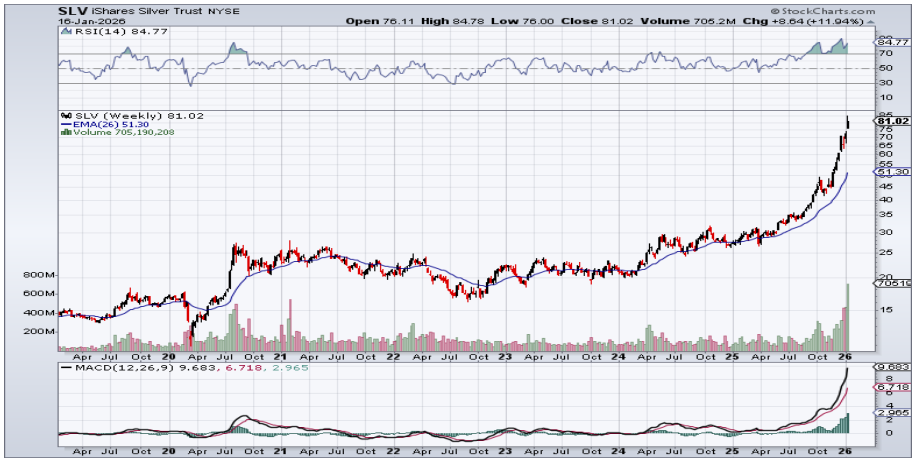
52주 신고가/신저가 ETF

1. 52주 신고가 ETF
2. 52주 신저가 ETF

** 차트 및 데이터는 1월 16일 마감 기준입니다.*

52주 신고가 ETF

은: SLV (iShares Silver Trust)



자료: Stockcharts.com, 유진투자증권.

리튬 채굴: LITP (Sprott Lithium Miners ETF)

자료: Stockcharts.com, 유진투자증권.

구리: COPX (Global X Copper Miners ET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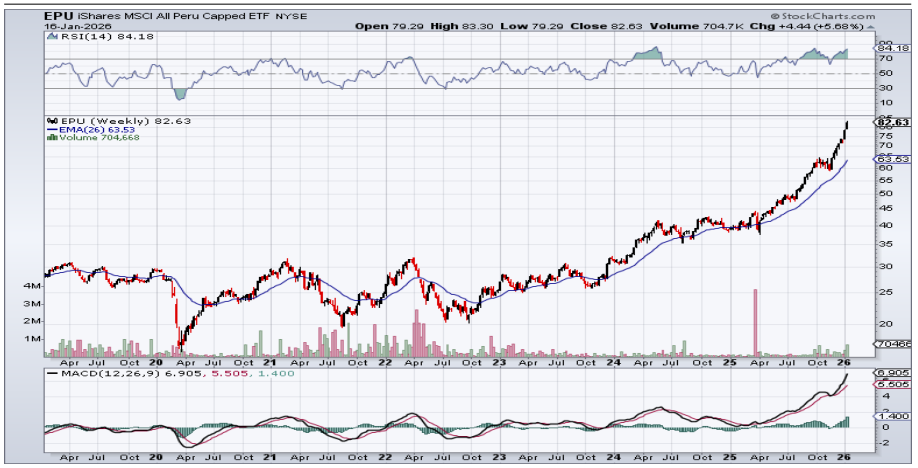
자료: Stockcharts.com, 유진투자증권.

희토류: REMX (VanEck Rare Earth and Strategic Metals ETF)

자료: Stockcharts.com, 유진투자증권.

52주 신고가 ETF

페루: EPU (iShares MSCI All Peru Capped ET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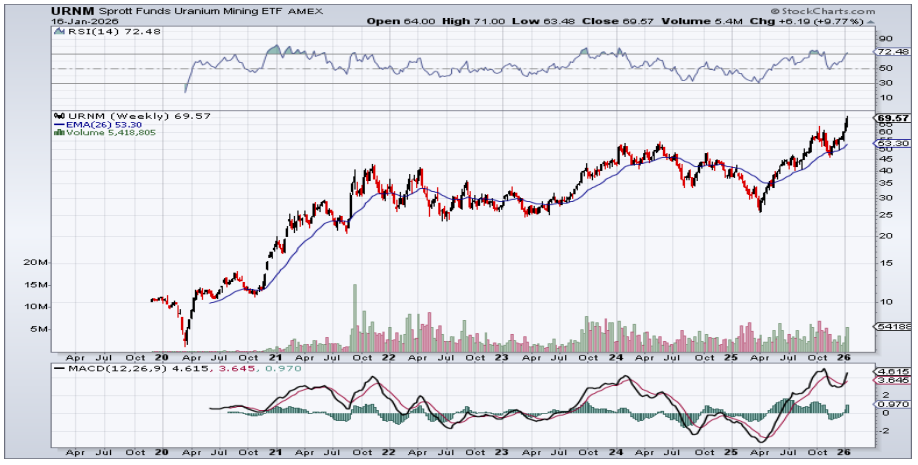


자료: Stockcharts.com, 유진투자증권.

우주: UFO (Procure Space ETF)

자료: Stockcharts.com, 유진투자증권.

우라늄 채굴: URNM (Sprott Funds Uranium Mining ETF)



자료: Stockcharts.com, 유진투자증권.

한국: EWY (iShares MSCI South Korea Capped ETF)

자료: Stockcharts.com, 유진투자증권.

52주 신고가 ET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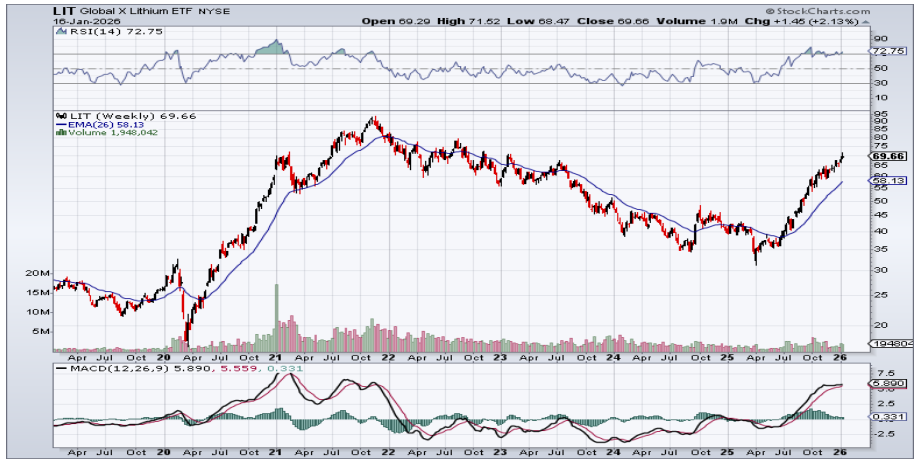
니켈: NIKL (Sprott Nickel Miners ETF)

자료: Stockcharts.com, 유진투자증권.

나스닥 반도체: FTXL (First Trust Nasdaq Semiconductor ETF)

자료: Stockcharts.com, 유진투자증권.

리튬: LIT (Global X Lithium ET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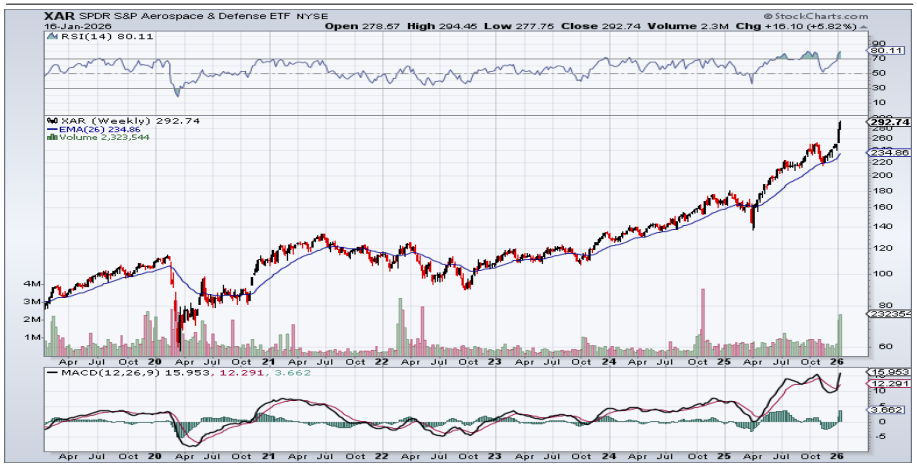
자료: Stockcharts.com, 유진투자증권.

스타50지수(중국): KSTR (Krane Shares SSE STAR Market 50 Index ETF)

자료: Stockcharts.com, 유진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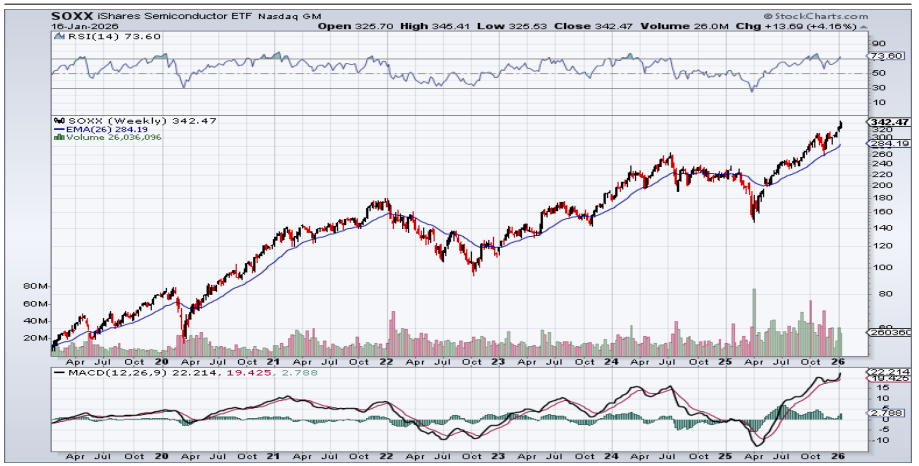
52주 신고가 ETF

방산: XAR (SPDR S&P Aerospace & Defense ET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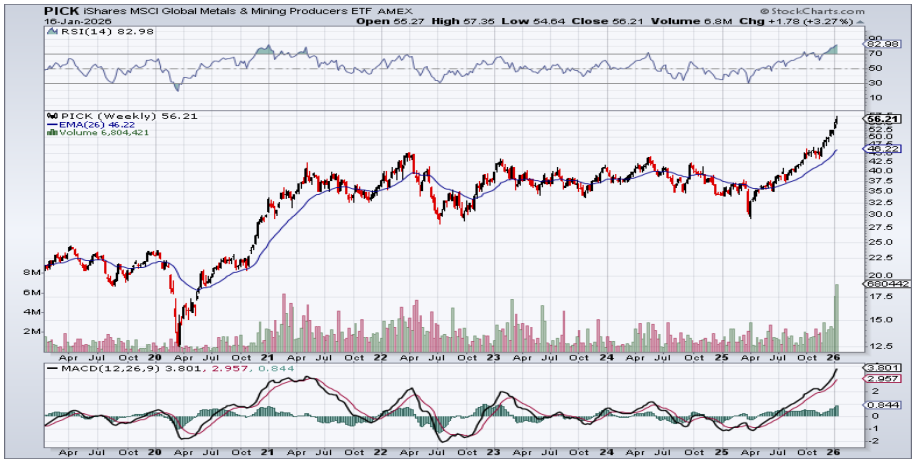
자료: Stockcharts.com, 유진투자증권.

필라델피아 반도체: SOXX (iShares Semiconductor ET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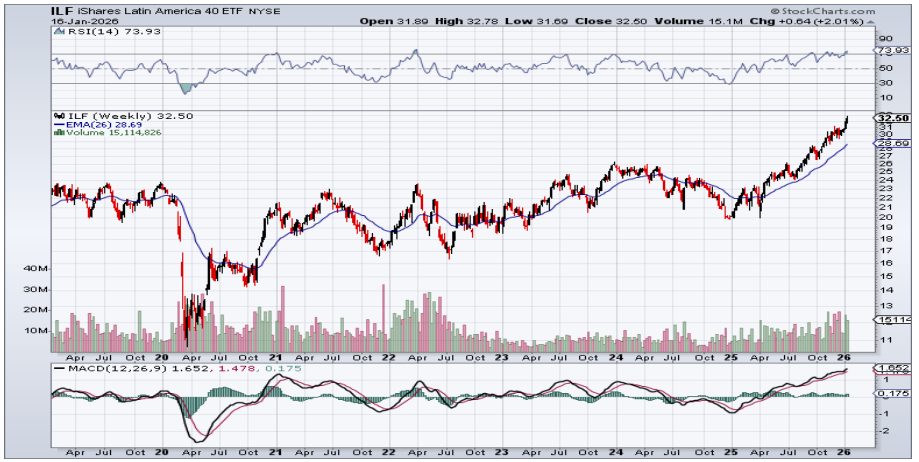
자료: Stockcharts.com, 유진투자증권.

메탈/마이닝: PICK (iShares MSCI Global Metals & Mining Producers ETF)



자료: Stockcharts.com, 유진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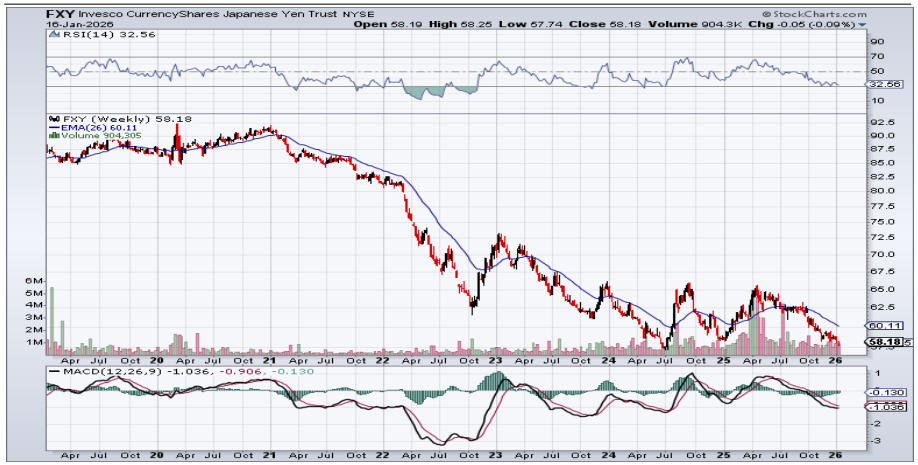
라틴아메리카: ILF (iShares Latin America 40 ETF)



자료: Stockcharts.com, 유진투자증권.

52주 신저가 ETF

엔화: FXY (Invesco Currency Shares Japanese Yen Trust)



자료: Stockcharts.com, 유진투자증권.

ETF STRATEGY

02

ETF 투자전략

구리 수요(demand)와 공급(supply)

ETF: Tiger 구리 실물

COPX, Freeport-McMoRan (FCX)

구리 수요(demand)와 공급(suppl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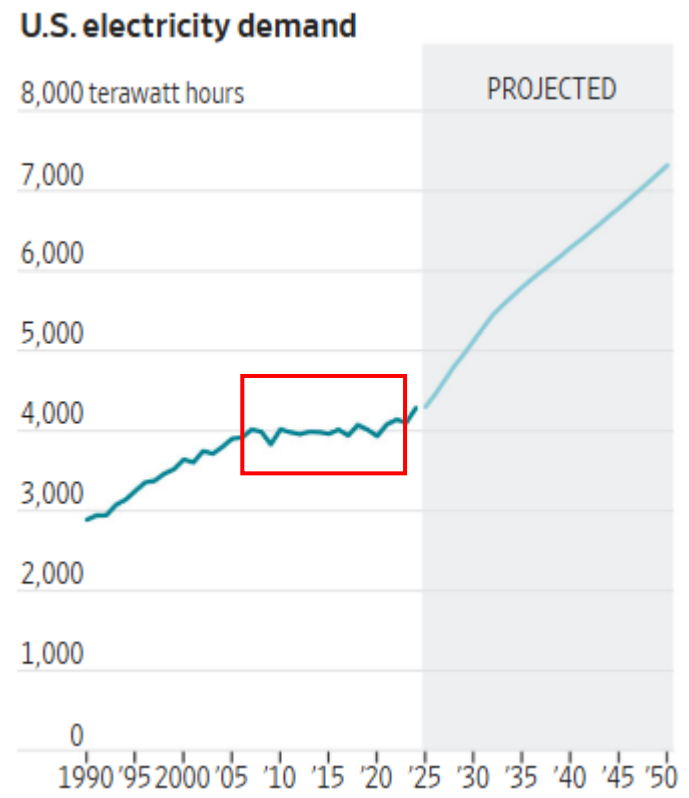
구리 수요

- “전기화(electrification)” 추세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음
- S&P Global의 기준(base) 시나리오에 따르면, 2040년까지 글로벌 전력 수요는 약 5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미국의 경우 지난 25년 간 전력 소비가 거의 증가하지 않았으나, 현재는 연간 최대 2.5% 수준의 성장 국면에 진입하고 있음
- 컨설팅 회사 ICF의 분석도 비슷함. 미국의 전력 수요가 데이터센터 수요를 주된 요인으로 2023년 대비 2030년에 25%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는 2030년까지 매년 연간 3.2%(CAGR) (전력 수요) 증가를 의미

  (WSJ, America’s Biggest Power Grid Operator Has an AI Problem—Too Many Data Centers, 1/12일)

- 주목할 점은, 위에도 적은 것처럼, 전력 수요가 지난 25년 간은 거의 증가하지 않았다는 점임
- 미국 전력 시장의 두 배 이상 규모를 보유한 중국에서는 전력 수요가 현재부터 2040년까지 연평균 3.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인도에서는 같은 기간 전력 수요가 연평균 4.2% 증가할 것으로 예상
- 구리 수요 증가의 근본 원인은 전력의 생산, 송전, 사용 전 과정에서 구리가 필수적이라는 점에 있음

미국 전력 수요



자료: ICF, WSJ 인용

구리 수요(demand)와 공급(supply)

구리 수요

- S&P Global에 따르면 글로벌 구리 수요는 4개의 요인과 함께 증가하고 있음.
- ③ AI, 데이터센터는 현재 가장 큰 수요 요인은 아니지만, 핵심적인 “새로운(New)” 수요 증가 요인임
- 나머지 3가지는 ① 핵심 경제적 수요(core economic demand), ② 에너지 전환 및 추가(energy transition and addition) 수요, ④ 국방(defense) 수요 임

구리 수요 증가: 4가지 요인

1 "핵심 경제적 수요(core economic demand)“; (전통적 경기 연동 수요, “Dr. Copper”)

- 건설업(전기 배관 및 배선), 제조업(모터, 발전기, 산업용 배선 등)
- 전기 가전(냉장고, 세탁기, TV 등)
- 냉방: 에어컨 설치/사용 증가

**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 → 전력 사용 증가 → 구리 수요 증가

** 미국 제조업 리쇼어링(reshoring) → 전력 소비 증가

▶ 연평균 약 2% 성장, 2025년 연간 1,800만 톤→ 2040년 연간 2,300만 톤으로 증가 전망

2 "에너지 전환 및 추가 (energy transition and addition)" 수요

- 전기차(EV)
- 태양광/풍력 발전
- 배터리
- 송전, 배전 인프라(transmission and distribution lines)

▶ 연평균 4.1% 성장, 2025년 연간 850만 톤→ 2040년 연간 1,560만 톤으로 증가 전망

3 AI, 데이터센터

- 인공지능(AI)와 데이터센터의 폭발적 성장
- 데이터센터는 전력 집약적(electricity-intensive) 시설
  1) 데이터센터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구리의 양도 많고,
  2) 데이터센터에 전력을 공급하는 전력망 인프라 건설에도 많은 구리가 사용됨

▶ 2025년 연간 110만 톤→ 2040년 연간 250만 톤으로 증가 전망

4 국방(defense) 수요

- 글로벌 국방비 지출 증가
- 가격에 대해 수요가 '비탄력적(inelastic)' 성격
- NATO 회원국, 국방비를 GDP의 5%까지 확대 공약
- 현대 무기체계 점점 구리 집약적으로 변화, 국방 부분의 구리 수요는 2040년까지 3배 증가 전망

▶ 2025년 연간 30만 톤→ 2040년 연간 100만 톤에 근접해 3배 증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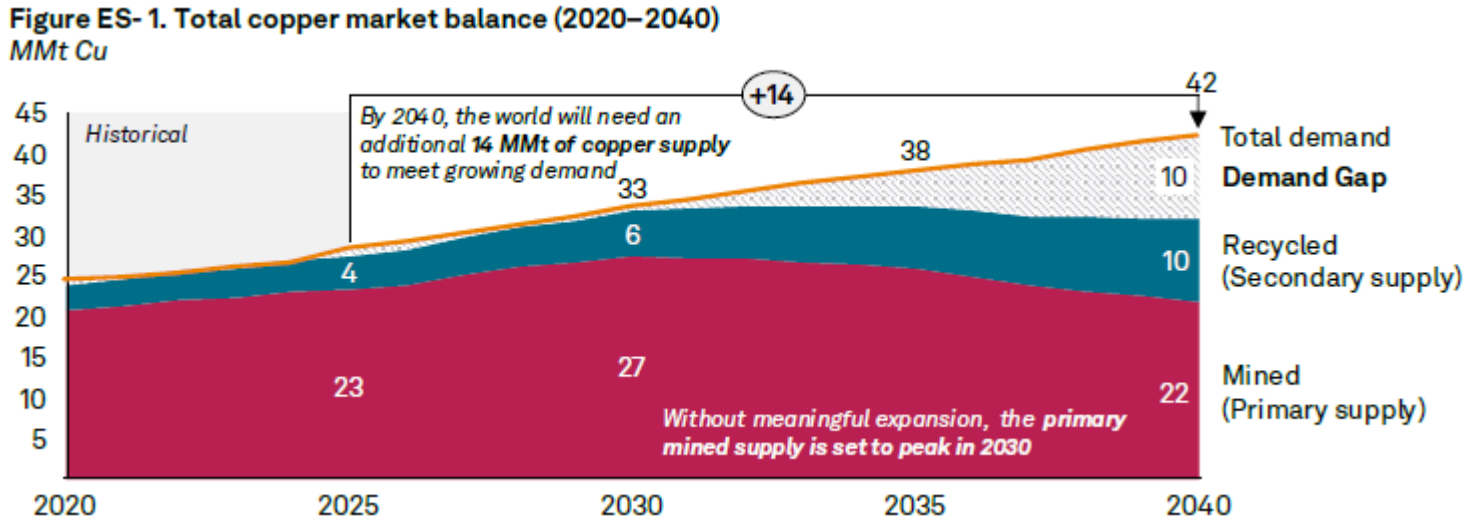
자료: S&P Global, “Copper in the Age of AI”, 2026년 1월

구리 수요(demand)와 공급(supply)

구리 수요 vs. 공급

- 글로벌 구리 수요는 2025년 2,800만 톤에서 2040년 4,200만 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이는 50% 증가에 해당(S&P Global)
- 의미 있는 공급 확장이 없을 경우, 2040년까지 약 1,000만 톤의 구리 공급 부족이 발생할 수 있음. 2025년 수요 대비 36%에 해당하는 규모
- 신규 광산 개발이나 기존 광산의 확장이 없을 경우, 1차 구리 채굴(mined copper) 공급은 2025년 2,300만 톤에서 2030년 2,700만 톤으로 정점에 도달한 이후, 2040년에는 2,200만 톤까지 감소할 가능성
- 재활용(recycling)은 2040년 기준 전체 구리 수요의 최대 약 4분의 1까지 충당할 가능성이 있으나, 수급 격차를 완전히 해소할 수는 없음. 이에 따라 1차 구리 채굴 공급은 향후에도 필수적인 역할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
- 참고로 IEA 전망도 비슷. IEA는 기존 및 현재 계획된 광산으로는 2035년 예상 수요의 70%만 충족할 수 있다고 경고

구리 수급 전망(Total copper market balance), 2020년~2040년



자료: S&P Global, 2026년 1월

LME 구리 가격

이전 최고치 상회

- 구리 가격은 작년(2025) 말부터 이전 최고가 였던 톤당 만$를 상회
- 새로운 변화를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

LME 구리 가격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LME 구리 가격 (2000년 이후)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ETF: Tiger 구리 실물

구리 실물에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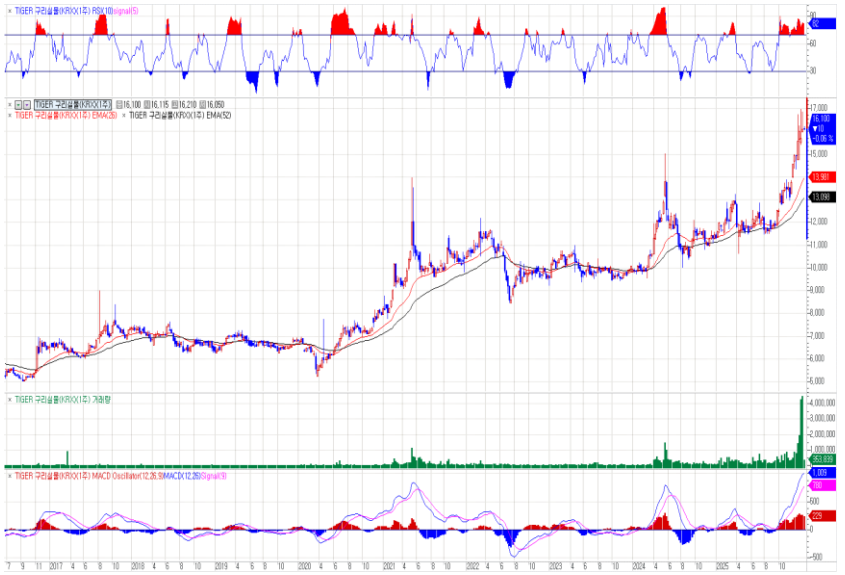
- 구리 실물에 투자(창고 보관 구리 증권). 구리 실물 50% 이상, 미국 상장 구리 ETF(CPER) 27%, 구리 선물(Comex) 10% 미만.
- 환헤지는 하지 않음. 연금(개인연금, 퇴직연금) 투자 가능

Tiger 구리실물 ETF(160580)

자산(asset)	원자재
상장일	2012-12-17
시가총액(억원)	1,636억원
총 보수	0.83%

자료: ETFCHECK, 유진투자증권

Tiger 구리실물 (weekly)



자료: KOSCOM, 유진투자증권

COPX: Global X Copper Miners ETF

글로벌 구리 생산 기업

- 미국에 상장된 구리 생산 기업 ETF: COPX 주가도 사상 최고치 경신
- 글로벌 구리 생산 기업 50여개 편입. 상위 10개 종목에 미국 기업 Freeport-McMoRan(FCX), Southern Copper(SCCO) 등이 편입돼 있음

COPX: Global X Copper Miners ETF

자료: Stockcharts.com, 유진투자증권. Weekly 주가 추이

COPX: Top 10 종목 비중

종목	통화	비중
KGHM Polska Miedz SA	PLN	5.8%
Lundin Mining Corp	CAD	5.6%
Boliden AB	SEK	5.1%
FCX	USD	5.0%
Glencore PLC	GBP	4.8%
SCCO	USD	4.8%
Hudbay Minerals Inc	CAD	4.7%
스미토모금속광산	JPY	4.7%
Antofagasta PLC	GBP	4.6%
First Quantum Minerals Ltd	CAD	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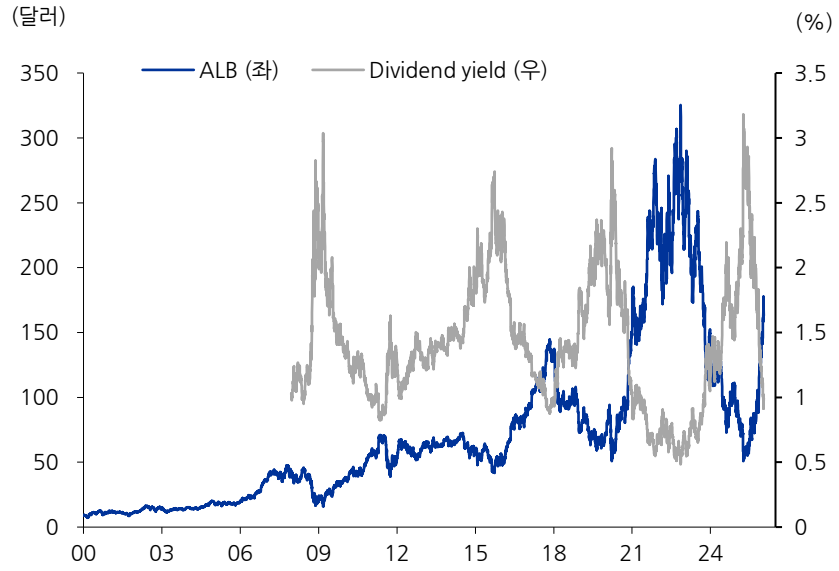
자료: ETFCHECK, 유진투자증권

COPX, Freeport-McMoRan (FCX)

배당수익률, 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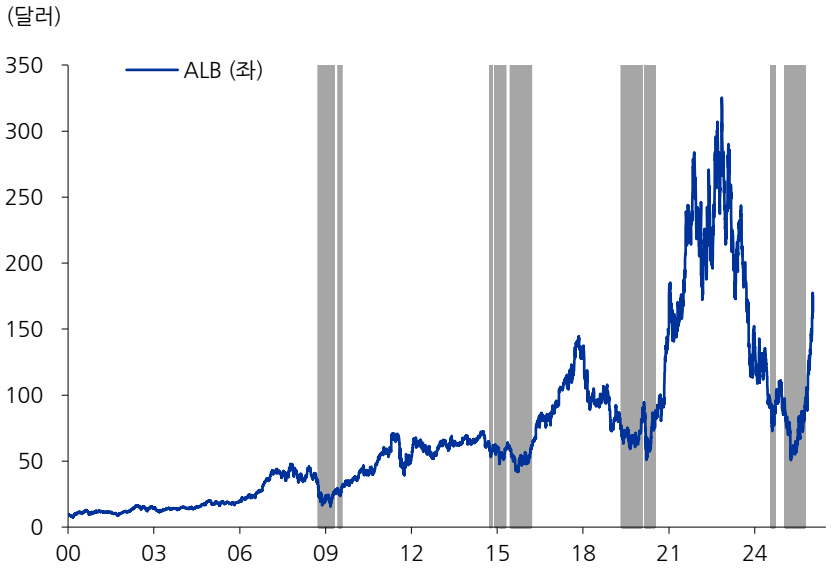
- 꾸준히 배당을 주는 커머디티 생산 기업에 대해, 커머디티 가격 하락, 주가 하락으로 배당수익률이 과거 대비 상대적으로 높아졌을 때 매수하는 방법은 앨버말(ALB, 리튬)의 경우를 보면 잘 맞았음.
- 배당수익률이 과거 대비 높아졌을 때(2% 이상)는 주식을 매수하기 좋을 때였음

앨버말(ALB): 배당수익률, 주가 추이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앨버말(ALB): 배당수익률 2% 이상 이었을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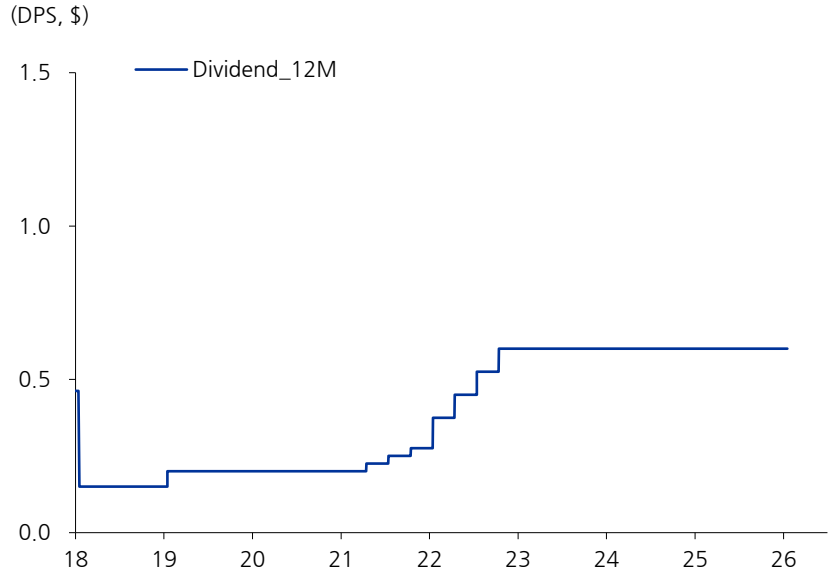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세로선 배당수익률 2% 이상이었을 때

COPX, Freeport-McMoRan (FCX)

배당수익률, 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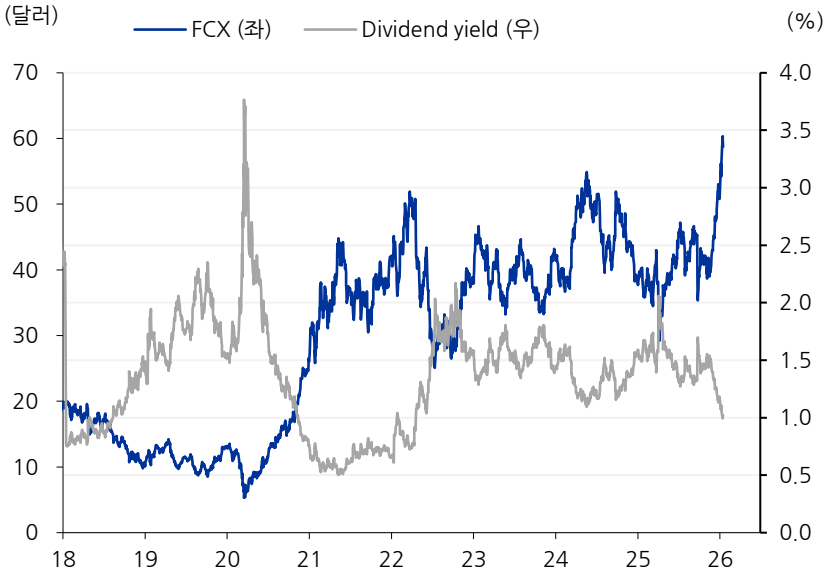
- 하지만 Freeport-McMoRan(FCX)은 앨버말과 달리 과거 배당이 꾸준히 증가하지 않고, 배당 증감이 심했음
- 2014년 부터 2018년 초까지 연간 배당은 최대 90% 이상 감소했었는데, 이후 더 감소하지 않고, 2019년 초에 바닥 대비 배당이 증가함
- 주가는 2019년까지 하락세가 이어졌음. 2019년에 주가 하락과 배당 유지로 배당 수익률이 2%를 상회했는데, 이후 주가는 반등했음
- FCX 배당은 2023년 이후 최근(26년 1월)까지 같은 수준인데(분기당 0.15$/주 배당), 배당을 늘릴 경우 주가에 좋은 신호가 될 것
- 작년 말 이후 주가 상승으로 현재 주가 기준 배당수익률은 1% 수준, i) 구리 가격 상승 → 실적 증가로 배당 늘리거나, ii) 배당수익률 1.5% 수준까지 높아질 경우 주가 매력 높아질 수 있을 듯
- 이는 현재 배당을 기준으로 하면, 작년 11월 주가 수준, 작년 11월 주가 수준은 의미 있는 지지선이 될 수 있음

Freeport-McMoRan(FCX): 지급 배당(12개월 합계) 추이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Freeport-McMoRan(FCX): 배당수익률, 주가 추이; 2018년 이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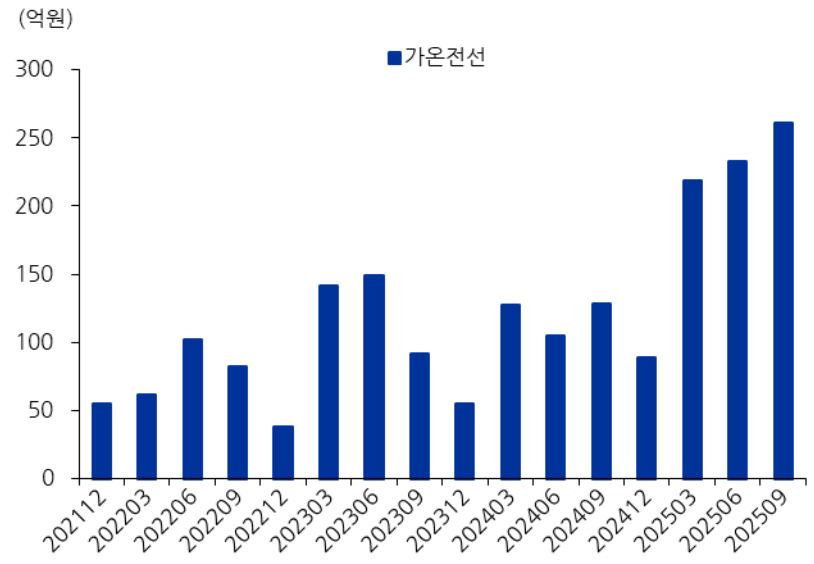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세로선 배당수익률 2% 이상이었을 때

전선 기업

국내 전력기기 ETF에 편입된 전선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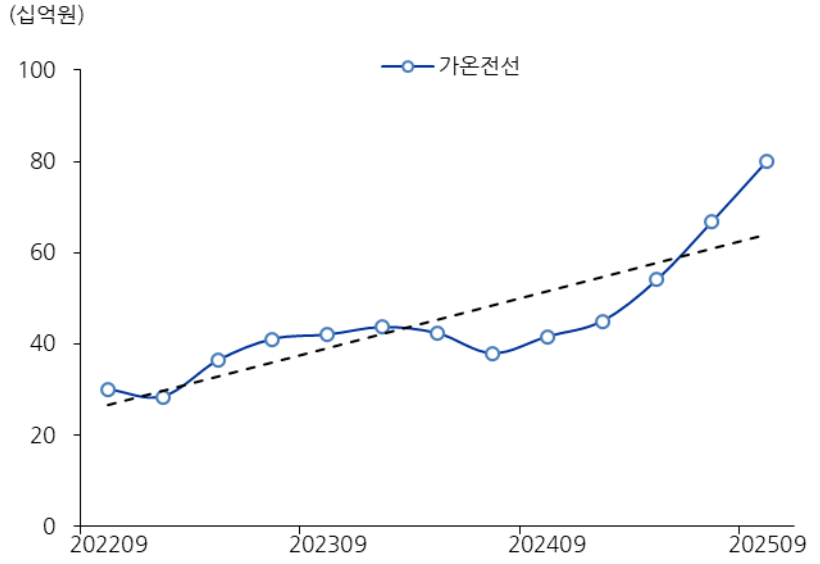
- 전선 기업은 제품 가격에 원자재(구리) 가격을 반영하는 조항으로 구리 가격 상승 시 수혜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국내 전력기기 ETF에 편입된 전선 기업을 보면,
- 몇 개 기업은 최근 분기까지 실적 눈에 띄는 증가세를 보임. 이익 증가 대비 주가 밸류에이션도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으로 판단됨
- 가온전선: 작년 3Q, 2Q 영업이익은 연율 환산하면 각각 yoy +79%, +94% 증가. 시가총액(1.5조원, 1/16일)은 작년 3Q 기준 최근 4개 분기 합산 영업이익(800억원) 대비 19배 수준

가온전선: 분기 별 영업이익 추이



자료: 퀀티와이즈, 유진투자증권. 2025년 3분기 기준

가온전선: 영업이익(최근 4개 분기 합산) 추이



자료: 퀀티와이즈, 유진투자증권. 2025년 3분기 기준

Compliance Notice

당사는 자료 작성일 기준으로 지난 3개월 간 해당종목에 대해서 유가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을 기준으로 해당종목의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조사분석담당자는 자료작성일 현재 동 종목과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제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동의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